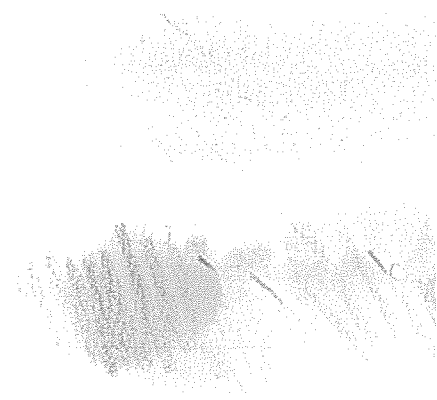


# 질염

황경진 박사\_ 그레이스병원



질염은 많은 여성들이 한 번쯤은 이로 인해 고생한 적이 있을 만큼 아주 흔한 염증이다. 대개 미혼 여성보다는 성생활을 하는 기혼 여성에게서 주로 나타나며 증상은 우선 냉이 많아지는데 냄새가 나거나 심하게 가려움증까지 나타난다. 원래 정상적인 질분비물은 흰색이거나 연한 노란빛으로 양이 그다지 많지 않고 다만 배란기 전후로 해서 맑은 물처럼 잠시 양이 증가하는 정도이지만 질염이 있을 때는 질 입구의 가려움, 화끈거림 성관계 시 통증, 소변시 쓰라림 등이 동반된다.

## 질염은 그렇다면 모두 성병인가?

많은 여성들이 이런 걱정을 하고 질염증 증상이 있으면 가장 먼저 남편을 의심한다. 그러나 실제로 질염을 일으키는 균의 종류는 아주 다양하며 성병도 있지만 성병균이 아닌 일반적인 단순한 균에 의한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질염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찾아가 균검사를 받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면 된다. 그러나 정말 배우자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성병균에 의한 질염이라면 치료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즉 임질균에 의한 경우에는 스펙티노 마이신 계통의 주사를 일주일 단위로 2회 정도 남편과 함께 치료해야 하며 혈액검사상 매독감염으로 진단되는 경우에는 페니실린 요법으로 1주일 간격으로 약 3회 정도 치료하고 그 후에도 계속 혈액검사를 하여 균의 정량측정을 하여 치료 과정을 관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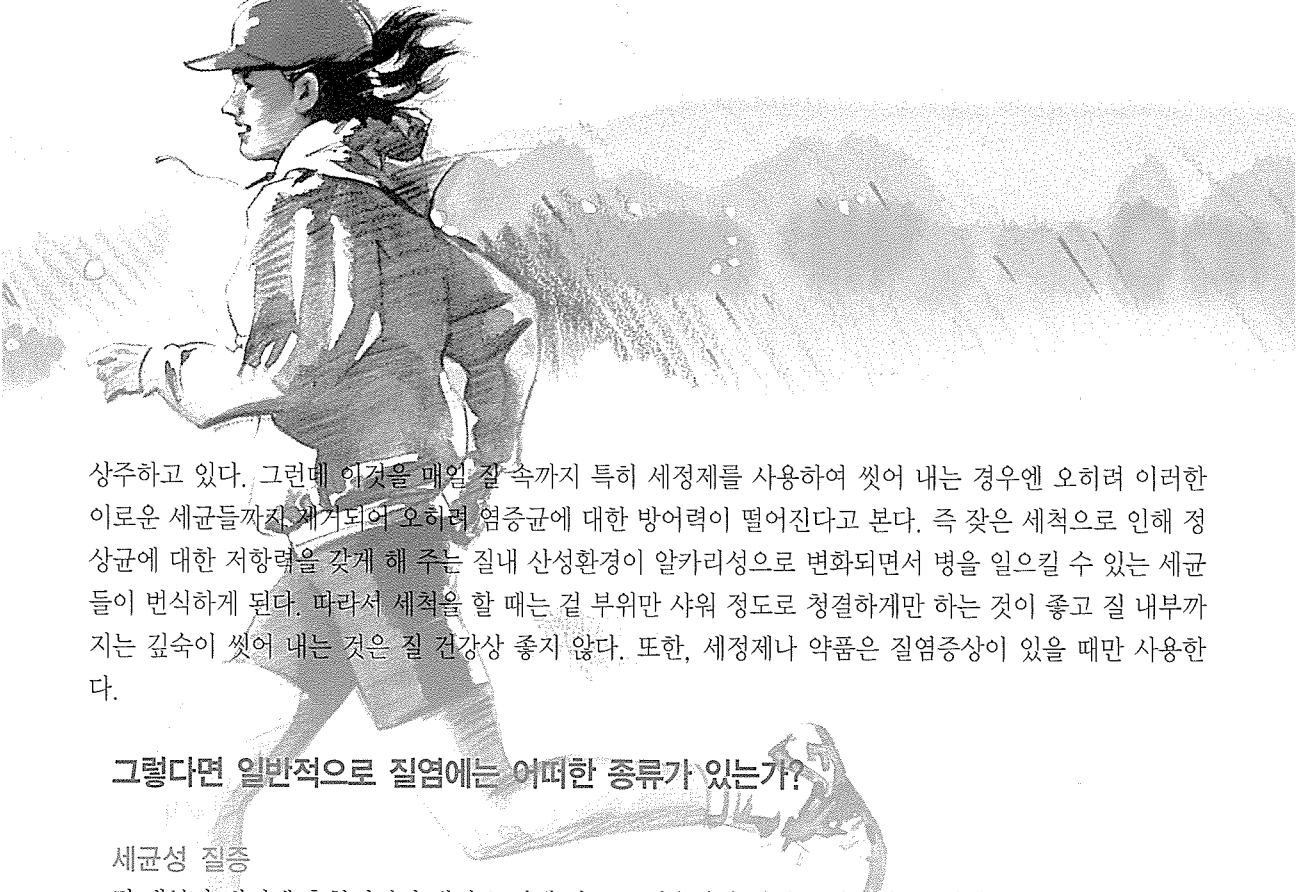
## 그렇다면 질염은 어떻게 예방 해야하나?

우선은 공기순환이 잘 되어야 하므로 너무 꽉 조인 펜티나 속옷을 입으면 좋지 않겠고 무엇보다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최상의 예방법이다.

그러나 성병의 증상이 의심스러운 경우엔 즉시 검사를 받고 치료를 해야하며, 배우자와 그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면 그대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 평소에 질세척제를 사용하는 것이 질염을 예방하는 방법이 되나?

아니다. 오히려 나쁠 때가 많다. 여성들의 질 내부에는 자체적으로 정화작용을 하는 이로온 세균들이



상주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매일 잘 속까지 특히 세정제를 사용하여 씻어 내는 경우엔 오히려 이러한 이로운 세균들까지 제거되어 오히려 염증균에 대한 방어력이 떨어진다고 본다. 즉 잦은 세척으로 인해 정상균에 대한 저항력을 갖게 해 주는 질내 산성환경이 알카리성으로 변화되면서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들이 번식하게 된다. 따라서 세척을 할 때는 걸 부위만 샤워 정도로 청결하게만 하는 것이 좋고 질 내부까지는 깊숙이 씻어 내는 것은 질 건강상 좋지 않다. 또한, 세정제나 약품은 질염증상이 있을 때만 사용한다.

##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질염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가?

### 세균성 질증

질 내부가 벌겍게 충혈되면서 냉이 누렇게 나오는 경우인데 대개 소량이다. 드레싱을 깨끗이 하고 약제를 사용하면 대부분 며칠이면 좋아진다. 특히 임신 초기에 이 균에 감염되면 냄새가 심한 노란 냉이 나오는데 조기 진통이나 조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원래 질 내부는 산성을 유지해야 이러한 균들의 감염을 막을 수 있는데 산도가 높아지면 이러한 병원성 세균들이 쉽게 번식하므로 산도를 낮추어 주는데, 균감염을 예방해 주는 비타민C 질정 등을 쓰는 것이 좋다.

그러나 세균 감염이 심할 때는 질에서 자궁 경로를 통해 자궁 내부까지 균이 들어가고 더 진행되면 나팔관과 난소 등 골반 전체에까지 퍼져 급성 골반염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칸디다성 질염

가장 흔한 형태의 질염으로 치즈 같은 냉이 허영게 쌓인다. 흰색의 걸쭉한 냉과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한다. 곰팡이의 일종인 칸디다가 주원인으로 임신부 당뇨병 환자의 경우 면역기능이 감퇴된 경우 잘 생긴다. 치료 후에 재발이 잘 되기 때문에 철저히 치료를 해야 한다.

### 트리코모나스 질염

기생충의 일종인 트리코모나스에 의해 발생되며 성관계를 통해 전파되는 성병으로 전파력이 매우 강하다. 후유증으로 불임, 골반염, 조산 등이 있고 물같은 냉이 흐르면 트리코모나스 질염을 의심해야 한다. 트리코모나스는 편모를 갖고 있어 운동성이 좋기 때문에 요도를 타고 방광까지 침입하기도 하며 침입한 균으로 인해 방광염을 유발하고 자궁내막을 타고 올라가 골반염을 일으켜 아랫배를 아프게 하기도 한다. 